



생태영농 탐방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합전마을은 대전을 기준으로 약100km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2시간 20분정도 소요된다.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가 2009년 완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준공되면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가는 시간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국도로 논산을 거쳐 강경이나 부여를 거쳐 가는 방법이 있으며, 좀 더 쉽게 가기를 원한다면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

여 전주IC로 나와 전주-군산 간 국도를 이용하면 1시간30분정도 소요된다. 군산에서 장항을 거쳐 합전마을로 가는 것이 서천읍을 경유하는 것보다 빠르다.

본부락, 고실, 셋터 3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합전 마을은 80여 가구, 2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마을은 서태산을 주산으로 좌우로 팔로 안은 듯한 모습으로 낮은 야산 밑으로 주거지가 형성되고, 주거지 부근에 동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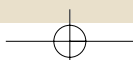
나무숲, 대숲, 소나무숲이 분포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동백꽃은 주로 남쪽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겨울부터 꽃을 피워 봄에 절정에 이른다. 지금 합천마을에는 동백꽃이 하나, 둘 피어나기 시작하였다.

합천마을은 2001년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마을로 선정되어 10억원을 지원받아 마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소형 닭장, 우사, 돈사, 닭장정비, 지붕도색 등 낡은 주택이 개보수되었고, 흥가처럼 버려진 빈집이 정리되었고, 어린이 놀이터, 정자, 산책로가 만들어져 마을내 경관이 바뀌어졌다. 또한 주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50평 규모의 농산물 가공공장, 농산물 판매장이 만들어졌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 어메니티센터(마을종합회관)가 건립되었다.

2003년 행자부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3억 1천여만원 사업비를 들여 정보센터를 구축하여 PC보급과 콘텐츠 구축을 완료하여 주민들

의 정보화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마을 농산물의 전자거래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보통신에 있어서 그동안 대도시에 비해 정보의 수집, 활용, 홍보 등에서 농산어촌에 소외감을 가져왔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초고속인터넷망을 마을회관뿐 아니라 집집마다 연결하여 컴퓨터가 보급되고, 전자상거래와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농산물 판매를 하고, 관광소득도 올리고 있다. 점점 거래실적이 나아져 도시와 농촌을 잇는 소통의 도구로서 정보화마을의 기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센터에 간사를 지원받아 주민교육, 홈페이지관리, 체험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3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차 정비가 이루어진 후 마을기반시설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하여 2차 정비 사업으로 6억 6천만





생태영농 탐방

원을 들여 2007년 11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재 마을 내 도로 폭이 좁고 불량한 농어촌도로 420m 구간을 다시 포장하고, 기존의 3m 폭을 6.5m로 확장하고, 마을 내 537평방미터의 차량 17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친환경자재인 잔디블록으로 조성하고, 그 동안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논으로 직접 방류되던 것을 개울로 흐르도록 268m의 배수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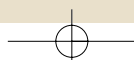
합전마을이 그린투어 프로그램(도농교류프로그램)의 효시로 알려진 데에는 유기농산물 농장 아리랜드가 있다. 아리랜드 입구에는 “이 땅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라는 문구의 시비가 있다. 농업은 생명을 잉태하고, 유지하고, 순환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의 건강도 무너지고, 삶에 영속성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농업이 중요하고, 농업을 천직으로 하는 농업인은 생명의 전도사이다. 따라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땅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 아닐 수 없다.

아리랜드는 아리랑 랜드(농장)의 줄인 말로 아리랑 농장은 고 정순보님이 1948년 합전마을에 정착하여 전국 최초로 튤립과 히아신스 재배에 성공하여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원예산업을 일으킨 곳으로 님은 육종학의 대가로 알려졌다. 약 10만평의 원예육종농장을 후손들이 이어받아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장으로 바뀌어 왔으며, 70-80년 된 동백나무가 100여



그루가 어루러진 숲을 이루고 나무 사이에 수선화 등 각종 꽃들이 심어져 있다.

매년 4월이면 이곳에서 동백꽃 축제가 열린다. 볼거리로 준비한 동백꽃 축제가 올해로 11회째 이어지며 대표적인 지역 동네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동백꽃 축제는 우리나라 유기농 역사가 그러하듯 처음에는 가격도 비싸고, 소비자에게 인지도도 많지 않아 선구자들은 고생을 하였듯이, 이곳에서도 어려움을 겪다 판로의 홍보 전략으로 동백꽃 축제를 기획하였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도시민에게 호응을 받아 지속되는 지역축제로 이어가고 있다. 도시민에게 볼거리와 쉬어가게 하는 축제로 작은 음악회와 연주회, 농촌 풍물놀이 등의 문화마당과 농촌 체험을 내용으로 구성하고, 축제 한편에 유기농산물을 전시해 직거래 판매를 하도록 하였다. 찾아오고 싶은 마을로 만드는 것이 축제의 최종 목표로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과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축제로 발전할 것이다.





마을 대숲 ▷

사계절 관광 프로그램

• 봄 : 동백꽃 축제

움추려들었던 겨울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에 봄꽃에 대한 갈망이 있다. 빨간 눈물 같은 동백꽃 겨울부터 봄까지 피고 지는 동백꽃, 수선화, 벚꽃, 목련 등 봄꽃으로 대지가 화려하게 피워날 때 음악회와 풍물 그리고 먹을거리와 어우러진 지역 축제, 가보고 싶은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 여름 : 갯벌체험

서해안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천혜의 자원이다. 갯벌은 바다의 허파와 같은 것으로 바닷물에 신선한 공기를 넣어 주면서 정화하는 곳이다. 특히 합천 마을은 금강하구와 서해안이 만나는 것으로 어패류가 풍부하여 갯벌체험으로 최적의 장소로 제공된다.

• 가을 : 농산물 체험

농업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계절로서 벼 베기, 고구마 캐기, 땅콩 캐기, 밤 따기, 감 따기 등 도시민이 직접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 겨울 : 철새도래지 견학, 갈대밭 견학, 갯벌생태탐사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생태,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받아 갈 것이다.





생태영농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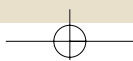
합전마을은 사계절 관광프로그램으로 도시민을 유인하는 홍보를 하고 있으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체류형 4계절 관광과 직거래를 통하여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합전마을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해가마을이 있다. 처음 해가마을을 접했을 때에는 또 다른 마을이 있나보다 했는데 해가마을은 합전마을에서 장류를 만드는 곳이다. 해가마을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의 지도 속에서 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합전 아줌마들의 명예를 걸고 맛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이다. 해가마을의 장만큼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 서천에서 맑은 바닷바람과 고운 햇볕아래 아낙들이 직접 농사지어 재배한 것들로 만든다. 재배품목으로 쌀, 잡곡과 가을이면

김장 절임배추, 건고추, 마늘이 있으며, 죽염으로 담근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이 있다. 이밖에도 합전마을에는 축산으로 한우 기르기, 양계(계란) 등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합전마을은 1사1촌 자매결연으로 지난 6월 대전도시철도공사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었다. 합전마을은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와 임직원, 그 가족들에게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마을행사에 초청,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고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속적인 영농회 농산물 구입, 농번기 일손 돕기, 자연 재해시 복구지원, 연중 교류 등을 약속하고 일차로 쌀과 장류 등 농산물을 구입하였다.

합전마을은 우수한 자연조건과 정부와 지방





합전마을 장류(고추) ▷

자치단체의 지원 등 외적인 긍정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와의 거리관계로 물류, 교육, 의료 서비스 등 외적인 불리한 조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마을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지 않아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 따라서 신농업 지식인 등 개별적으로 뛰어난 인재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를 내는 일도 앞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전마을은 최적의 가족 휴양지로 발전할 것이다. 도시민에게는 여전히 고향에 대한 향수가 필요하다. 그것이 체험이든, 관광이든, 먹을거리든 합전마을은 도시민을 만족시킬 경험과 의지가 있다.



△ 정보화마을 교육장



△ 마을 앞 입구 안내표지판

